



'한마음으로 돌아가네'를 주제로 2회에 걸쳐 마련된 공연에는 스님 64명으로 구성된 승가합창단, 합창단 초창기 멤버들로 이루어진 한뿌리 합창단을 비롯해 보살·거사·청년·어린이합창단 등 총 340명의 계층별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목소리와 선율로 마음의 가르침을 전했다.



64명의 스님들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선법가를 불러 공연의 첫 문을 열었다.



'Let it be'를 개사해 재밌는 풍토 형식으로 노래하는 거사합창단.

2천 청중 법열에 젖은 노래 향연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 30주년 기념음악회... 13일 안양 아트센터서

"앞으로는 마음공부를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온다. 그러니 마음 도리를 노래로 만들어 사람마다 가정마다 부르게 되면 어려움을 많이 면하게 될 것이다."

- 대행 선사 범어 중

2012년 열반하신 한마음선원장 묘공당 대행 선사는 불자들에게 생활 속 수행을 항상 강조했다. 그 가운데서도 선법가를 통한 음성포교를 중요시했다. 마음의 도리를 노래로 부르다 보면 지극하게 자기 마음을 지켜보며 관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선법의 도리를 노랫말로 한 선법가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선사의 뜻에 따라 선원에서는 어머니로 구성된 보살합창단이 탄생했다. (현 한뿌리 합창단) 이어서 거사합창단이 출범했으며 현재는 청년·어린이 합창단까지 구성 되어 한마음선원을 대표하는 신행 단체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마음선원은 선법합창단 30주년 기념음악회를 12월 13일 안양 아트센터에서 열었다. 이날 선법합창단은 창단 3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자성을 밝히는 마음공부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한마음으로 돌아가네'를 주제로 2회에 걸쳐 마련된 공연에는 스님 64명으로 구성된 승가합창단, 합창단 초창기 멤버들로 이루어진 한뿌리 합창단을 비롯해 보살·거사·청년·어린이합창단 등 총 340명의 계층별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목소리와 선율로 마음의 가르침을 전했다.

공연은 1·2부로 나누어 한마음선원 선법

합창단의 발자취를 시대별로 보여주었는데, 1부는 대행 선사의 범어 영상과 선법 합창단의 탄생 과정을 담은 오프닝 영상으로 문을 열었다. 1984년부터 1994년까지 초창기 합창단의 여정과 불교음악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거사 합창단 선생님의 소개 및 1994년 창단된 거사합창단의 이야기가 영상으로 소개됐다.

이어 첫 공연은 스님들의 '선법가는' 합창으로 시작됐다. 스님들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선법가를 불러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다음으로 창단 멤버인 '한뿌리 합창단' 이 밝은 치마에 흰 저고리를 맞춰 입고 초창기 공

대행 선사 범어 · 계승
선법가로 부른지 30년
주지 스님 '정진' 당부

연 때의 모습을 재현 하며 '누가 하는가' '마음의 불씨' '큰절을 받으소서'를 불렀다. 이후 거사합창단이 '부처님 계신 곳' '생명의 실상'을 합창하며 남성 불자 특유의 중후함을 과시했다.

이어서 '돌 아닌 도리를 실천하다'를 주제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활동을 담은 영상이 소개됐다. 이 시기에 대행 선사는 국내·외로 왕성한 포교활동을 펼쳤으며, 2001년과 2004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큰 규모의 합창제가 열렸고, 공연에서 마련된 수익금은 심장병어린이와 간암환자들을 위해 기부돼 불교계 안팎으로 귀감이 됐다.

영상의 뒤를 이어 한마음선원의 지휘를 맡아온 김원규 지휘자가 독창으로 '정신 발전의 길'을, 청년합창단이 '공심 공제 둘 아닌 노래' '푸르게 살라' 등을 역동성 있게 불렀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선법합창단은 더욱 장중해지고 다채로워지는 시기를 갖는다. 연등축제를 비롯해 세종문화회관에서 대규모로 열려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2011년 한마음음악제, 2013년 오대산 월정사에서 열린 '탄허대종사 탄신100주년 기념합창제' 등을 통해 불교계 내에서 펼쳐지는 공연예술의 수준을 한층 더 높였다. 영상에서는 이 시기의 모습을 소개한 뒤 이어서 창단 24주년을 맞은 어린이합창단이 메들리형식으로 '한사랑' '마음속 씨앗' '내 한생각 법이 되어'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를 해서 무엇에 쓸 것인가'를, 혼성 합창단이 '서천의 푸른 나무' '한마음으로 돌아가네'를 불렀다.

2부 공연은 대행 선사의 계승과 함께 서운재 선법합창단 지휘자의 독창 '자유인의 한마음'을 시작으로 피아노 병창을 하는 최준 군의 '갈까부다' '대장부 II'가 이어졌다. 최준 군은 국악과 서양음악을 접목해 만든 피아노 병창이라는 장르를 통해 새로운 불교음악의 가능성을 선보였다.

또한 보살합창단은 스님이 가사를 바꾸기도 하며 즐겨 듣던 '사의 찬미' '하숙생' '그대 없이는 못살아' 등을 불렀으며, '노란샤쓰의 사나이'를 '노란샤쓰의 부처님'으로 개사해 울동과 함께 선보였다.

거사 합창단은 개그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Let it be'를 개사해 재밌는 풍

토 형식으로 노래해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밖에 마지막 피날레에서는 혼성합창단과 청년합창단이 다함께 '모난 것을 등글게 쓸 줄 알아야 자유인이 된다' '공식으로 흐르네'를 불러 장엄하면서도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편 이날 공연에는 주지 혜원 스님, 한마음선원 전국 지원장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 '현대불교' 박개성 공동대표, 안양의원군포사암연합회장 성무 스님(삼막사 주지), 지장선원장 현오 스님, 이필운 안양시장, 이치원 BBS 불교방송 사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2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선법가 한 구절 한 구절에는 대행 선사의 간절한 지비의 눈물도 담겨 있지만 우리의 의식을 깨어나게 하는 벼락같은 사자후 또한 담겨 있다"며 "현대를 사는 불자들이 바쁘게 생활하는 속에서도 노래를 통해 다시 그 마음을 살피고 정진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한마음선원은 대령음악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찬불가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포교원에서도 이번 계기를 통해 전국에서 이런 음악회를 열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재원 한마음선원 상임교무는 "선법가는 한마음선원 신도들의 마음이 맑아지고 자비로워지고 법열이 생기게 하는 노래이다. 대행 선사께서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부처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합창단 뿐 아니라 모든 불자들이 선법가를 불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니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진제공=한마음선원

객석



공연후 리셉션에서 기념촬영을 한 포교원장 지원 스님, 주지 혜원 스님, 이지혜 아나운서, 이필운 안양시장 부부, 포교부장 송묵 스님(사진 왼쪽부터)

"선법가는 그대로 화두"

부처님 계신 곳

대행 선사 작사/김용호 작곡

부처님 어디 있나 내 맘속에 계시네
중생은 어디 있나 내 맘속에 있네
내 맘은 어디 있나 한마음속에 있으니
한마음 어디 있나 찾는 맘에 있어
아아 찾는 맘에 부처님 성품 보이네
아아 찾는 맘에 부처님 성품 보이네

보고 듣고 말하게 하는 자 그가 누구냐
육신을 참나라 알면 정말 어려서야
육신을 관장하는 그 자가 내 주인
내 주인 어디 있나 찾는 그 맘속에 있네

송묵 스님은 이번 선법가 3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스님은 "거사합창단이 부른 '부처님 계신 곳'이 기억에 남는다. 마음 밖에 부처님 없다는 말이 있듯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처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 자구 중생의 삶을 살아가며 분별·집착한다"며 "그러나 한마음이 되면 내가 부처고 부처가 나라고 생각하면 대비심이 일어난다. 선법가의 가사들은 내용이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일러주고 있다"고 말했다.

거사합창단의 '부처님 계신 곳' 합창이 울려 퍼지자 법열감으로 눈물을 흘리는 불자들이 객석 곳곳 눈에 띄었다. 한마음선원 선법가의 가사는 수행의 지침이 되고 근본이 되는 가르침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사람들에게 마음의 도리를 전할 수 있는 음성포교로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7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고
불신으로 한국 땅에 오셨음을 증언한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유훈화 사후세계에 진실을 밝혔다!!

• 춘천본사 T.033-243-1795, 243-1787 • 불서총판 운주사 T.02-3672-7181
•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안내

- 현지사 부산분원 정기법회
- 1월 4일 (일), 오전 9시 30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53회)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 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 지역별로 버스운행됩니다.

문의 춘천본사 033)243-1787, 1795
부산분원 051)554-5150